1955.6.25

3 - AUG - 9
Copy ____ 1960

시사만화잡지

활살

№6 (55) 1955.6

송용남 그림

이것이 양캐라오

군정 훈련의 한 휴식시간에 인민군 어느부대의 쾌활한 소대 선동원 동무가 돌림 이야기 내기를 하자고 제기 하였다。

『동지들! 우리 돌림 이야기 내기를 해봅시다。 제목은 『이것이 양캐라오』 이야기 내용은 6,25이후 조국전쟁이 끝날때 까지에 동지들이 느낀것이 라야 할것。 이야기 내용이 제목에 딱 들어 붙어야 할것。 분대장동지로 부터 시작』

『야—이건 기습인데! 그래 해 보지 5년전 6,25에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고 리승만을 앞 세우고 38선을 넘어들었지 이것이 양캐라오 저—김일령 전사동지 차례요』

『야—이것도 기습입니다 3•8선 넘어선 리승만이 깽하고 꽁무니 빼자 뒤섰던 하로강아지 눈이 앗득해 깨궁 깨궁 이것이 양캐라오 자—정인석동지!』

『금강언덕에 몰리워 기쓰는 꺽다리 한놈을 찔러눕이니 뒤섰던 배뚱뚱이 코대장이 펄석 주저 앉아서 팔뚝시계 떼여놓며 살려줍시사……이것이 양캐라오』

『원통 눈엔 반하면 두눈 뜬 사람 피상하다고 돈에 팔려 온놈 눈엔 남도 그래 보이는게지 이것이 양캐라오』

『울러메기 잘하긴 지랄소 갈고 급하면 꼬리끼고 네네 다말하죠 이것이 양캐라오』

『따발소린 듣기도전에 정신 잃으며 호미켠 백성에겐 닥치면 딱—꿍 총질 이것이 양캐라오』

『고양이도 남의 집은 알아보건만 제집 남의집 가리지 않고 드나드는것 이것이 양캐라오』

『달밤에 달보고 짖는갠 있다하여도 그림자도 없는 『공산주의 위협』을 짖어대는것 이것이 양캐라오』

『꼬리 들고 껑충뛰고 갈갬 하다가도 먹을 것만 생기면 물어 뜯고 덮치고 이것이 양캐라오』

『돈 주머니 보면은 혀를 빼 물고 헐떡 헐떡 개춤이 질질 이것이 양캐라오』

『인간백정—사람의 피를 좋아하는 이것이 양캐라오』

『어린이 늙은이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불을 질러 태워 죽이며 좋아 웃음치는 이것이 양캐라오』

『깽 깽 짖어 졸개 강아지 모아 들이여 이웃집 발것니기게 하다가 정갱이가 불러지고 골통이 터져 깽깽 이것이 양캐라오』

『몽둥이 찜질 받고 골사박 깨 지고도 정신을 못 차려 또 훌락적시는 이것이 양캐라오』

「그만!」

선동원은 뒤를 이어 이렇게 웨치고 나서 바로 그놈 양캐놈들에 대하여 잘들어 마췄으며 다시는 덤버들지 못하게해야 하며 만일 덤버 들면 우리가 큼직한 몽둥이 찜을 단단히 배혀야 한다고 말 하였다。

휴식시간이 끝났다。

일동은 유쾌히 웃고서 이러섰다。 —류 달—

세계 지도에서 조선을 없새려고
미제는 발광을 다 하였건만
영웅적 조선! 나의 조국은
제자리에 의연히 놓여 있고
너는 세계에 솟아 있다
× ×
우리 가슴 속에도 또한
창공에 치닿는
고층 건물과 굴뚝이 솟아
마음의 두 날개 나래치거니
너를 받들고 우리 가리라
조국 보위의 초소로

민주 기지의 직장 마다에서
확확 타오르는 창조의 노력과
화려한 광장과
풍작의 전야를
보위하기 위하여
× ×
통일의 봄
조선의 봄
인민의 봄을 위하여
우리는 철벽의 방선에서
총을 굳게 잡으리라—

—인민군 김영철 시 『평양』중에서—

안창수 삽화

—선생님! 미국놈들은 왜 학교라면 꼭 폭격합니까?
—그것은 미제가 조선의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지요。

당과 정부는 전쟁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공화국의 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그의 교육 교양과 행복스러운 성장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방면의 배려를 돌렸으며 전후 계속 부절한 배려를 돌리고 있는바 명년도 부터는 초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며 오늘은 보배로운 우리 공화국의 후대들이 웅장하게 복구 건설된 민주 학원에서 자유로히 배움에 열중하고 있다。

—선생님! 공화국 정부에서는 왜 학교를 선참으로 복구합니까?
—그것은 공화국의 어린이들은 조선의 꽃봉오리기 때문이지요。

최한진 그림

젊은 세대를 위하여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이며 희망이며 꽃 봉오리다。 모든 사람들의 희망과 미래는 어린이에게 의탁되여 있다。 어린이를보면 그 나라의 처지와·장래를 알수있다。

오늘 6•1절—아동들의 국제적 명절을 온 지구우에서 뜻깊이 기념하는 것도 어린이들의 처지와 자기들의 미래를 위한 간곡한 념원에서 출발 된다。

인류의 미래와 희망을 안고 태여난 어린이들이건만 그들의 처지는 한결같이 못하다 쏘련을 위수로한 국제민주진영의 크나한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은 모두가 배우고 춤추고 노래하며 끝끝하고 씩씩하다 모두가 샛별같은 눈동자를 빤짝이며 맑고 깨끗한 수정같은 마음으로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

한편 미국을 선두로한 제국주의 나라들의 어린이들은 굶주려 앙상해진 갈빗대를 불끈쥐며 누덕옷을 걸치고 앵미간을 펴지 못한다。 학교란 문 어구에도 가보지 못하며 린치 살인등 어지러운 검은 마수가 그들을 끌어드리고 있다。 다만 몇몇 부호의 자식만이 부지럽는 행세를 쓸뿐이다。

어린이들의 처지가 왜 이렇게도 다르게 됐는가? 그것은 그들이 사는 나라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나 인민민주주의 나라에선 인민자신이 나라의 주인 임으로 그의 미래를 담당할 어린이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데 전력을 다한다。 학교에도 병원에도 모든 어린이들이 다갈수있게 한다。 배우고 건강하게 자라야만 앞날의 모든것을 걸머지고 나갈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국주의나라에서는 인민자신이 나라의 주인이 못된다。 나라는 얼마안되는 자본가들이 마음대로 하고있다。 그들은 돈을 벌어야 명맥을 이을수있고 돈을 벌기 위해선 학교나 병원을 세워선 수지가 안맞는다。 전쟁을 눌구고 무기를 팔아야 폭리가 난다。 자본가 몇사람의 자손만 잘 자라면 자기들의 미래는 의탁된다。 숱한 어린이들이 어떻게 살던 그들이 알바는 아니다。 돈벌이 잘되는 군사비는 전체 예산의 65%를 내면서도 교육과 보건엔 3,8%도 아까워하는 미국 우유값을 올리려고 우유를 강물에 던지므로써 어린이의 태반이 만성영양부족에 걸리게 하는 미국 저택의 자란용 찬나비엔 빼로드 옷을 입혀도 뻘뻥밑에 텅구는 헐벗은 어린이들에겐 침뱉고 구둣발치는 미국 이런 제국주의 나라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행복을 바랄수 있겠는가? 1변에 200만건의 겉도 린치 살인 사건이 어린들의 손으로 버려짐을 어찌 우연타 하겠는가?

우리나라의 어린이들도 판이한 두처지에 놓여있다。 공화국 품안에 안긴 어린이들은 모두가 배우며 가장 고귀한 보배로 극진이 보호받고 있다. 커다란 희망과 행복에 쌓여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 그러나 남반부의 어린이들은 축엄과 굶주림과 비애에 잠겨 있다。 50만 이상의 고아들이 깡통을 차고 미국 병사들의 청결통을 들추고 있다。 어린이들의 코를 꿰고 손톱을 쇠사슬로 꿰여 끌고 단인다 휘발유 찌고 타쳐 죽이며 너털 웃음 찬 미국놈이 주인노릇하며 그 앞잡이 리승만 로흉이 독판 치는 판국에 이럴수 바께 다른것이 뭣이 있겠는가? 미국놈과 리승만은 웃는 어린이까지 도살하려고 전쟁을 눌구는데 급급해 덤빈다 세상에서 이놈들을 없애지 않고는 어린이들의 행복을 바랄수 없다。 어린이가 귀엽거던 그의 장래를 위하거던 미국놈과 리승만을 쳐부시고 우리 나라를 공화국 깃발 아래 통일해야 한다。 전쟁을 못 일꾸게 하고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한다。 6•1절 6•6절을 맞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있다。 (백 우)

관료주의 제1호 양식

장진광 그림

녹초된 위풍

체신성 총금 관리국 부국장 김수련은 책임 검열원들을 불러 놓고 지시하였다。

『동무들! 우리 사업의 일대 전변을 위하여 관하 기관에 대한 검열 방법을 고쳐야 겠소 잔만하고 에피소드적인 검열 대신 집중적이고 기동적인 "검열 선풍"을 이르켜야 겠소。 이번에는 나도 같이 나갈작정이니 준비들 하시요』

검열원들은 부국장과 더부러 기동적인 새 검열을 진행 하는데 만족을 느끼였다。 김수련 부국장을 책임자로 하는 검열원 일행은 몇일후 사리원에 도착하였다。 기동검열원 일행을 사리원 우편국 일군들은 반가히 맞이하였다。 그중에도 총금과장 서광준은 만사를 제쳐 놓고 뛰여나와 부국장의 영접에 골몰 하였다。

『우리 사업을 잘보아 주십소 이번에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나도 공부를 좀 보내주십시요』

서광준은 현신 수다스럽게 부탁도 하고 악의없는 투조로 불만도 토로 하였다。 저녁에는 위선 사리원 뒷골목 조용한 방 한간을 숙소로 준비하고 푹신한 침대에 깨끗한 침구를 가추어 놓게 하고서 저녁식사의 찬거리에 대하여 까지 일일히 관심을 돌렸다。 우편국 책임간부들이 숙소 준비에 대하여 비슷한 이야기를 끄집어 내었을때 서광준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 되였다고 안심 시켰다。 그는 눈치 빠르게 사업했다고 칭찬을 들었다。

사업을 포치하고 숙소에 돌아온 일행은 저녁 식탁에 돌아 앉았다。 검열원들에게는 이제까지의 출장에서는 보기 어렵던 식찬이 눈에 띄웠다。 그들은 부국장을 바라보며 이야기 하였다。

『늘 부국장동지와 같이 출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덕이 아니라 총금 과장이 똑똑한 탓이지!』라고 부국장은 대답했다。

검열원들은 총금과장이 생활력이 있어 보인다는 둥 그런 사람은 교활하다는둥 자기 직속 상부의 검열이니 성의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둥 횡설 수설하며 저녁식사를 끝냈다。

이튿날 검열원들은 집중적으로 달라붙어 총금관계 사업을 꼴꼴히 다브았다。 검열과정에서 수선 40여만원의 국가재정을 어물 어물 처리해 놓은 흔적이 드러났다。 김수련은 『신중성』을 기하여 더 자세히 파볼것을 지시하였다。 그날밤에 총금 과장 서광준은 간단히 약주를 한잔 하고서 저녁을 듭시사고 이끌었다。 술이라면 장인턱이라도 떠다가 팔아먹고 싶은 김수련에게 약주 한잔 소리는 귀밑을 재리게 하였고 그보다도 부국장의 위신에 비추어 하부와의 『한잔쯤』은 성의를 무시하는것 보다 났겠다는 생각이 떠 올랐다 그는 검열원들을 대리고 약주 한잔을 들기시작 했다。 어느듯 약주는 약효를 내었다。 눈 시울이 맥풀리게 되자 『자비심』도 꼬리를 저었고 『털어놓고 이야기 하며』소리도 몇차례 오고갔다。 새벽 세시까지 모두가 늘신하게 술취신 노릇을 하였다。 누가 검열원이고 누가 검열받는 사람인지 분간할수 없겠금 흐리터분한 취기가 방안을 휩쌌다。

다음날 아침에 김수련에게는 흐뭇한 그의 유쾌감이 서광준의 상급에 대한 「존경심」과 「재간」과 「속씨원한 성품」을 안고 꼬리를 끌었다. 그에게는 어제 밤 몇번이나 설명한 서광준의 「40만원 처리」 리유가 그럴듯싶게 생각 되였다。 사실이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그 리유가 매우 「재간」있게 꾸며 졌다고 느껴졌다 아니 타당치 않게 되여있다 하더라도 「그놈의 성품」에 비춰 또한 「인정」상 도리로라도 그렇게 보는 것이 무사하지 않을가? 그는 자리에 누어서 취기를 풀면서 이리 꼼꼼 저리 꼼꼼 궁리하였다。 그에게는 기왕 대접도 많이 받은바에는 어떻게해서 든지 「무사」하게 만드는것이 「사람을 살리는것」이라고 「큰 마음」을 먹었다。 이틀이 지나서 40만원건은 리유가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검열을 시작한지 5일만에 사리원을 떠났다。 총금 과장 서광준은 부국장의 가방을 들고 연석 침대차까지 전송을 나왔다。

평양에 돌아온 김수련이 가방을 열었을 때 서광준의 상부『존경심』이 돈뭉치로 변하여 들어있었다。 그후 그의 검열원 일행의 빈번한 식당출입이 사람들 눈에 띠우게되였으며 사리원 왕래가 몇번 더 계속된 후에는 김수련의 팔목에 고급시계가 번쩍이였고 새로히 큼직한 상아 빠이푸가 물리워졌었다。

김수련이가 그 후 무려 35차에 걸쳐 서광준의 「대접」을 받는동안 사리원 우편국 총금과에서는 어느듯 40만원사전이 2백만원사건으로 커지고 말았다。 그러나 인민이 나라의 주인인 국가 기관에서 이러한「도적놈」이 오래 백여 날수는 없었다。 진정한 인민의 충복들로써되는 검열원 일행이 그들의 뒤 꼬리를 짜르기시작하였다。 난데없이 위풍을 떨고「자비심」을 쓰고 「재간」도 피운 그는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아직 남은 마지막「위풍」을 떨치면서

『서동무? 무슨일이 있던지 입을 딱 봉하시요 내가 다 처리할테니……』

이렇게 사리원 우편국 총금 과장 서광준에게 긴급전화를 걸었다。 한편 김호련 등 네명의 검열원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비밀회의를 열고

『동무들! 끝까지 입을 봉해야하오, 동무들의 신변은 내가 책임질테니까!』 몇날이 못가서 인민의 눈초리는 김수련의 고질든 「위풍」을 그의 머리털과 함께 깎아 치우고야 말았다。

— 석 봉 —

흑막을 걷어 치워라

일부 간부들은 개인 리기주의적 탐욕에 눈이 어두워 국가 재산을 절취 랑비하며 혁명에 해독을 주고있는바 인민 대중은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묵과 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 물자를 값싸게 팔아먹은 인연으로…

—빗싸도 할수없소— 모리배의 배부른 흥정。

인민의 신소에 좇아들어 무릎을 맞대고 앉어보니

드디어 자기의 죄상은 폭로되였다。

박승히 그림

관료주의 진렬장

△ 팔으로 며주를 쑨다해도……

신계군 간부 시학 김명일 동무는 교육부장 리윤보의 말이라면 팔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고지 듣으며 알랑거린다。

국가에서는 교원들의 교수 준비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으나 신계군 교원들만은 잡다한 사무처리에 얽매여 교수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리윤보 교육부장은 국가시책의 정확한 실시를 요구하는 교원들을 향하여 "안일한 사상이 농후하다"고 하면서 부당한 욕설까지 퍼붓는 것이 였다。

이럴때면 눈치빠른 김명일 간부시학은 부장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 하였다。

또한 그는 자기와 같이 무원칙하게 맹종하는 교원들은 덮어놓고 좋다고 치주며 정당하게 비판하는 교원들은 은근히 미워하는데로부터 빈번히 조동시키는 것이 였다。

신계군 인민위원회 지도간부들이 정말 정신을 똑똑히 차리지 않고서는 교육부장의 내려먹이 사업과 시학의 아첨과 일부학교들에서의 맹종주의가 시급히 시정될 수 없을 것이다。

△ 종이장과 명령

중공업성 기계공업관리국 일부 일군들은 원자재를 해결해 줄 대신에 책상 머리에 들어붙어 빈 지도서만 내려 보내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착한 종이장은 평양시 도량형기 제작소 책상 우에 산떼미를 이루었다。 자재대신 빈 지도서를 받아쥔 제작소 일군들 역시 로동자들에게 원자재와 작업 조건을 지어 줄대신에 명령과 호령으로 사업을 추진시킨다。

로동자들은 원자재가 확보 될대신에 「명령」과 「호령」에 월초이면 쇠 조박을 줍는데 총동원되고 월말이면 그것을 녹여 생산하느라고 숨을 헐떡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래도 관리국 일부 지도 일군들은 「체계」 있게 사업하기 위해 계획서와 지도서만은 빠짐없이 제때에 내려보내는가 하면 제작소 일군들도 또한 그것을 제때에 집행하기에 『페물을 리용하시요 페물을……』하고 로동자들을 폐물 수집에 동원시키노라고 목이 쉴 지경

△『인정』깊은 지배인의 「눈감기」

영제 요업공장 지배인 강단동무는『절약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로동자들에게 배급하는 로사용 물자를 감아 둥기고 있다。

로동자들이 요구하면『쌓아두는것은 절약이요』하고 눈을 똑바루 뜨고 말한다。

그러나 딴구멍으로 빼돌리는 도적놈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눈을 감아 버리는것이 습관이 되여서인지 로동자들의 작업조건과 생활문제에 대하여 어지럽게된 합숙을 수리하자고 제기하면『왜 당신들은 행정사업을 대행하려하오?』하고 영 눈을 딱감고 만다。

「인정」깊은 지배인의 눈은「번호」가 맞지 않는듯 언제까지 이렇게 할 작정인가?

([illegible])

△『친구』처럼 귀한것이 없어……

『친구처럼 귀한것이 없어…… 내「친구」황병윤이가 중구역 상업관리소 소장이야!』평양시 중구역 종합상점에서 일하는 리완룡은 항상 이렇게 자랑했다。

리완룡은 물건을 구입한다는 구실로 온하로해를 외출로 시간을 보내면서도 해결해 오는것은 없었다。

그가 상점에 있는 날이면『사지 않을 물건은 아예 보여 달라고 하지 마시요』라고 손님들에게 신경질을 부린다。

그래도 황병윤소장은 그를 4직장 상점 점장으로 등용시켰다。

상부로부터 검열이 내려왔다。 리완룡은 전달치기 자유주의자로서 들어났으며 동시에 일정한 수속도 없이「친구」라하여 부당하게 리완룡을 등용시킨 황병윤 소장의 소행도 알려졌다。

(장필순 글)

최영근 그림

국가 재산을 탐오랑비하는 자는 인민의 극악한 원쑤이다

절약은 인민 경제 계획 초과 완수에 금자탑을 쌓는다

송용남 그림

엑스광선실

『눈먼 말 방울소리 따라간다』

일부 간부들은 아직도 낡은 고용사리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우의 지시라고해서 깊은 연구와 분석도 없이 자체의 실정과 실효 여부를 전연 고려함이 없이 하부에 맹목적으로 내려 먹임으로써 사업을 망쳐먹는 맹동 주의를 범하고 있다.

안창수 그림

『콩볶아 먹다가 가마 터뜨린다』

일부 국가 일군들은 나중에야 어떻게 되던 우선 눈앞에 부닥친 일에만 급급함으로 인하여 후에 큰일을 저지르게 되는 현상을 가져온다。

리영춘 그림

『나막신 신고 대동배를 쫓아간다』

사회는 전진한다。그러나 일부 락후한 농민들은 낡은 사상잔재의 고집때문에 뒤 떨어지고 있다。

최한진 그림

『인정은 바리로 싣고 진상은 꼬치로 뀐다』

일부 일군들은 자기의 리해관계에 사로잡혀 뢰물 받기에만 눈이 어두워 탈세 행위를 조장시키고 있다。

백인균 그림

"활살 일기에서" 채송리에서

내가 지나가는 거름에 평남 중화군 채송리에 들려서 들은 이야기………

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 리명봉과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이 주고받는 말………

『리 위원장님? 일이 난처 해졌는데요! 어찌된 셈인지 우리 협동 조합의 출근률이 아주 나빠졌거던요.』

『큰 소리치고 내몰아야해, 그들한테 귀담아 들을게 뭣이 있다구? 거저 내몰아대는게 상책이요』

『우리 조합에선 『종자가 부족해서 또 야단 난걸요』 녀녀할것이 뻔하기에 내버려두었더니 이젠 말 태운 실랑 버선 깁기니 참……』

『종자감도 없이하고서 농사짓는다구? 이젠 나도 물으겠소 종자없으면 조합원을 머려 내쫓구려, 반 회의같은때 잘 나오지 않는자 같은걸』

『글세 그럴수도 없구? 그리고 또 선진 영농법 해설을 아니한다느니, 농산품 전람회를 하자느니 성화까지 부리는 판이니 참……』

『제길 코구멍 붙있기를 잘했소! 정말 답답하게도…

…바쁜판에 언제 그리구 있단말이요 우선 씨를 뿌려야 하오 빈자리를 메우고야 보지않겠소』

이—응—하는 기지개 펴는 소리가 나더니 관리 위원장은 나가버리고 조금후에 리 서기장이 들어왔다 그는 어델 갔댔는지 술 기운이 어벙벙한 모양………

『아 글세 말많기로는 우리 동리가 재상감이라니까, 위원장님과 내가 농사를 짖으면서 왜 배급을 타느냐고 시비를 걸지않겠소 그뿐인가요 위원장님네 탁화생 현물세 아니한것까지 숙덕거리는 모양이든군요』

『참새알 볶구어 먹을 놈들같으니……아 그런데 그전 또 알기는 어떻게 안담?』

『헤?! 귀신이 곡 할노릇 이지! 량곡 운반비 없앤것까지 뻔히 알고 있는걸요』

볼일이 바빠서 이야기의 끝을 못듣고 떠나간 나는 얼마후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려보았는데 리명봉의 떵떵 구르는 어성은 그전 보다도 사나워졌었다 누구하구 이야기 하는지는 알길없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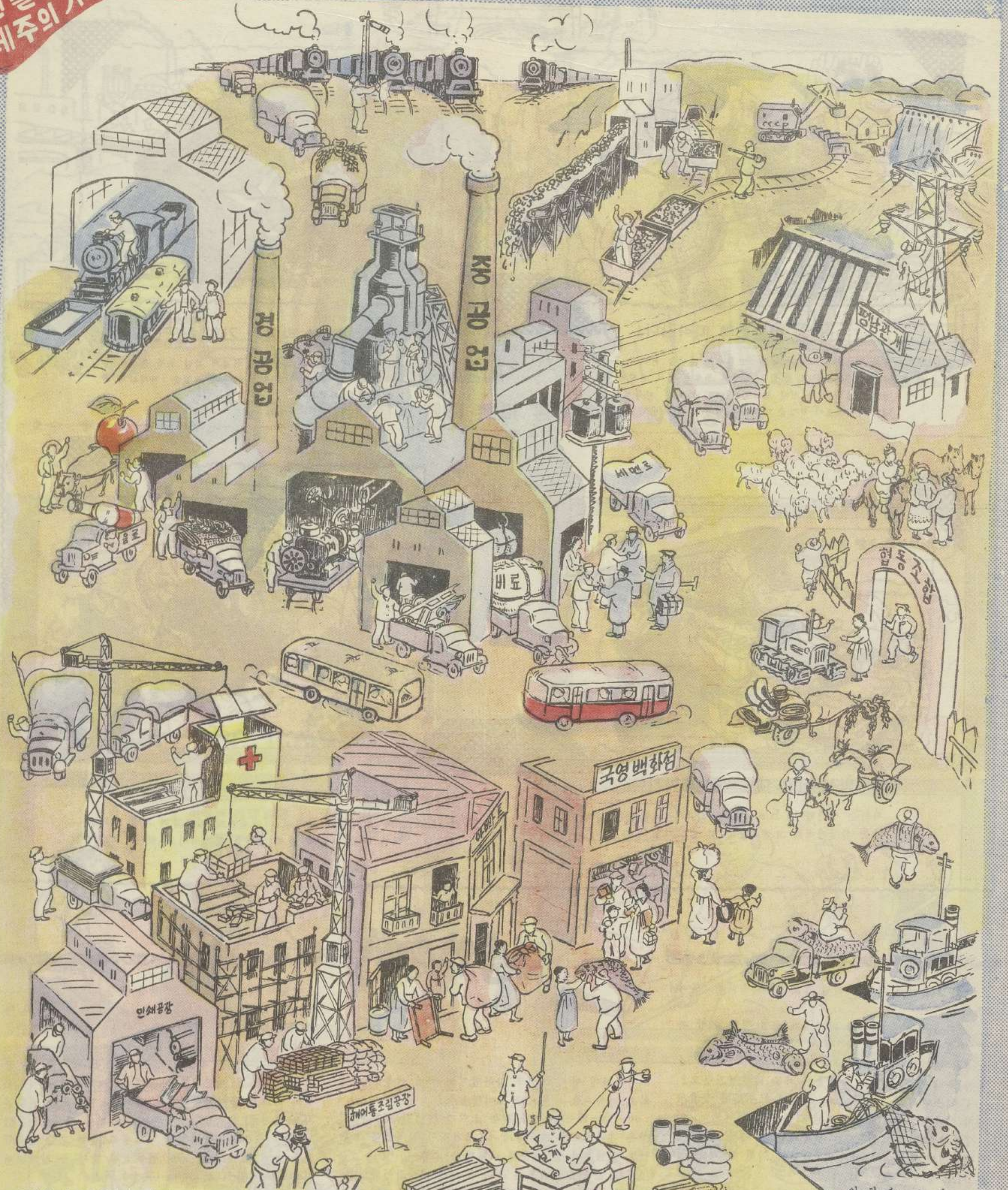
『먹통같은것들 같으니 신소? 신소는 배기석이나 윤리덕이 하라고 낸것인줄 아는게지? 그자들이 본시 근성이 나쁘고 불평군들이라고 했더니 검열원도 별다른 자료 못얻고 간모양인데? 제놈들이 하나 둘 신소했댔자 별수가 뭐람? 검열원이 백번와도 협동 조합 간부들이나 우리 리 인민 위원회 간부들의 말이 꼭 맞아떠러지군해서 빈틈이 없는데야……』

나는 더 들을 필요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았다 내 눈치가 호랑이 눈치나 이만만 하면 벌써 냄새까지도 짐작할수 있었기에……

하여튼 이 동리에 괴상한 냄새가 떠돌고 "량반"같은 호령 기름이 돌고 일제때의 관리같은 냄새가 나니 아마도 리 인민위원장 리명봉의 냄새도 역시 『구수』 할걸…

(로 성)

영원불멸의 국제주의 기치하에!



안 창 수 그림

조국의 민주기지 반석같이 다지며
하늘높이 치솟는 건설과 증산의 불길을
형제적 인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더 억세게 더 힘차게 고무한다 추동한다。

복구된 용광로에 흐르는 쇳물에도
낮과 밤 끊임없이 짜내는 옷감에도
우리의 거리와 마을 그어느 곳에나
그대들의 뜨거운 정 않서린곳 있으랴!

열두 삼천리 벌엔 생명수가 흐르고
기름진 땅 사래 긴 밭에 뜨락또르 달릴때
스피카 마다 즐거운 노래소리 흐르고
친선의 뻐스들 거리 거리 달린다!

석탄과 광석이 쏟아져 나올때
풍어기 휘날리며 어선들 돌아오고
일떠선 발전부의 다빙이 돌고돌면
어둔밤 거리와 마을 불빛이 휘황해라!

복구되는 공장마다 새로서는 공장마다
기계소리 우렁차 모든물자 산적되니
화려한 거리마다 국영상점 축순일듯
우리들의 새 생활엔 행복의 꽃 피여난다!

새로세운 학교에선 글소리 랑랑하고
공화국의 문화예술 금자탑에 찬연해라
벗들의 도움받아 병원들도 일어서니
향상되는 보건체육 인민들은 전실하다!

모쓰크바 북경 형제적 모든 나라
한 마음 한뜻으로 얽혀진 우리벗들
이 나라의 불꽃 튀는 건설장과 공장마다
외로운 그대들 손길 언제나 함께 있다!

모든난관 물리치라 참다운 주인들아!
건설과 증산의 불길 더욱 높이자!
오직 하나 조국의 통일 독립 념원하여
이 땅의 평화위해 앞으로 돌진하자!

국제유모어

КРОКОДИЛ—끄로꼬질

쏘련 풍자 만화 잡지 끄로꼬질 1955. 9호에서 전재
화가 꾸꾸릐닉쓰

누구의 놀음이냐?

—나의 것이요!—본의 독일인이
 고함을 지르네
—나의 것이요! —위—쒸 불란서인이
 떠드러 대네
외국인은 그들 두사람에게
 동맹을 체결 할것을
 명령 했지요。

그러나 이 한 쌍은
조약을 심의 하면서
"파—리"의 국경 표식 말뚝에
서로 제 모자를 씌우려 하네

과리가 본과 노름하는 것이 아니요
본이 과리와 흥정 하는것도 아니요
그들을 각각 런던과 워싱톤이
 놀리지도 하고 있다네

에쓰·마르샤크

Ludas Matyi — 류다슈마지

헝그리야 풍자 만화 잡지 류다슈마지 1955. 5호에서 전재

친절한 양복점

—대통령 각하 이 칼로 당신은 다만 위협만 하시오

미국의 점령

이것에 대해서 원 출판물이 전한 바와같이 모든것은 대단히 간단하게 진행됐다。오스트라리야에 있는 미 점령군의 군조 제임쓰 모리쓰는 자동차를 타고 원의 거리를 달렸다。그는 이미 두 마리의 고양이를 깨워 죽였고 거이 12명이나되는 통행인들을 진탕으로 끼얹었다。그리고 친절하게 그에게 경의를 표시하고 있는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며 지금 또 담담 하기 시작 했다。"무엇을 또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고안해 낼까?"—그는 시무룩하게 중얼 거렸다。이 순간에 앞 유보도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뚱뚱한 오스트라리야인이 그의 눈에띄였다。

—야! 지식인 인데! 읽고 있군…—모리쓰는 킥 웃고 가속 답자를 눌르고 유보도로 차를 몰았다。사람은 많았다。우선 군조는 자동차로써 신문을 들고 있는 오스트라리야인을 넘어 트렸다。그는 계속 네명의 통행인을 넘어 가게했다。

"그래도 오스트라리야인은 나쁜 사람은 아닌데—모여든 사람들이 재빨리 오스트라리야인을 자동차! 밑에서 끌어 냈을때 그는 이렇게 생각 했다。—농 할줄아는군! 이제 나를 발리겠지……"

제때에 경찰이 곧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군조를 빼내기 위하여 왔다。

—여러분 여러분!—몸소 전투 행위를 지도 하고 있던 국립 경찰 장관인 빼제루 훈헨씨는 원 사람들을 타일렀다。—정말 당신들은 사람이 농하는것을 보지 못했소?

모인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하고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떠내보내고 얼떨떨해진 군조를 보내고 나서 장관은 옆에서 있는 수위에게 명령 했다。수

—이와 어떤 흔적도 없게끔 여기를 깨끗이 치워

수위는 한숨을 쉬고 신문 조박지를 주어 들었다。"미국 군대들의 폭행은—그는 천천히 읽었다—미국의 점령의 우월성을 과소 평가 할수는 없다……미합중국은 오스트라리야의 자유의 믿어운 옹호자이다

그것은 미국 신문 "잘쯔브로께루 나후리흐텐"지였다。

그·유리예프
한 동 신 역

漫画 — 만화

중국 풍자.만화 잡지"만화"1955. 54호에서 전재
화가 미 곡

낡은것 과의 투쟁속에서!

논 밭 머리를 서로 맞대고 있는 중미리 농업 협동 조합과 법성리 농업 협동 조합에선 제짝하면 말 싱갱이 벌어진다。

『아•글세 종자가 만숙종인데 륙상모를 아니하고 수확을 어찌 낸다고 땅고집이요? 「농업 기술 도해집」이란 책도 않보셨군!』중미리 농업 협동 조합 작업 반장 리숙자동무는 딱하다는듯이 내 쏘았다。

『온, 천만에?! 그 책이야 나도 봤지! 논이면 다 같은가? 흥! 이 논이야 내가 몇해를 부쳐왔다구서ㅡ 이 논은 가물도 안타서 물모라도 너무 잘돼서 야단이라오』법성리 농업 협동 조합 작업 반장 김수길 령감은 코 웃음을 쳤다。

무더운 유월의 태양 아래서 제초 작업이 한창이다。

『내말이 틀리거든 내손톱에 장을 지지라니까。 작년에도 륙상모로 재미를 못봤는걸! 아무리 제초기를 휘둘러도 죽어가는 아이 옆에서 청룡 흔들기지 소용이 무어람。 벼 노릇하기는 애저녁에 틀린길 가지고ㅡ』김수길 령감은 리숙자동무네 조합 논을 넘겨다보며 이렇게 빈정댔다。

『봄에는 병아리 자랑 아예 않한다우! 두구 봐야지 누가알겠소? 규정대로 꼭꼭 소주밀식을 했는데 어림없지요!』

『흥! 소주밀식이 좋은건 나도알지! 그러나 이 논만은 다르다니까. 그 돋아나다만 모 포기가 아주 귀엽소!』그는 싱싱한 자기네 모 포기를 바라보며 의기 양양 하였다。

따끈한 해별이 눈부시게 나려쪼인다。 세벌제초 할 때까지는 아직도 포기가 약하던 리숙자동무네 조합 논 벼는 덧대가 무성하게 피져서 몰라보게 달라졌다

『자 보시란 말이요。 그렇게 흉보든 우리 조합논의 애송이 벼가 아주 장정이 됐습니다。 땅고집을 좀 버리시고 좋은일은 흉내라도 내는게 좋지않을까요?』리숙자동무는 김수길영감에게 타일르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거야 거름독을 타서 그런걸 가지고ㅡ큰 소리 작작치오。 작년여름엔 않그랬나! 그건 병집이야 병집!』

김수길 영감은 「륙모도 논에따라 다ㅡ좋은건 아니라」는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뻗대보려고 억지를 쓴다.

여름철에 한동안 몹시 날이 가물고 나서 어느듯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이 닥쳐왔다。 리숙자 동무네가 가꾼 중미리 조합 논의 벼는 가물도 아니타고 알알이 소담스럽게 여물어 가는 벼 이삭들이 고개를 푹푹 숙으리고 시원한 바람결에 황금 물결을 치고있다。

그러나 김수길 령감이 가꾼 법성리 조합논의 벼는 심한 가물을 타서 그만 앙상한 볏대들이 힘 없이 하느작 거리고있다。

「천만의외」에도 모든 형편이 거꾸로 뒤바뀌여진 두 조합논의 벼를 대비해 볼때마다 김수길 령감의 손액은 매시시 풀리고 그렇게 극성스럽던 그의 고집도 완전히 수그러지고 말았다。

최 찬 긴 그 림

원목 좀벌레

벌목장에는 많은 귀중한 원목들이 썩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일군들은 책임을 회피 하고저 겨우 화목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썩은 원목들을 건설장으로 보내여 국가에 더욱더 큰 손해를 주는 것을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

송충해로 부터 산림을 보호하기에 헌신 분투한 딱따구리는 크게분개 하였다。

장 진 광 그 림

이래서야 되겠는가?

감흥동 여러군데의 수도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아서 걱정인가 하면 다른데서는 물이 넘어 흔해서 걱정이다。

건설장에 나가는 남편의 새벽밥을 짓는 감흥동 아주머니들은 남먼저 일어나서 량손에 빈 물통을 들고 등넘에 있는 수도에로 달린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수도 사업소에서 조곰만 로력하면 해결될 일……

감흥동 김해숙

주먹치기

편직기 10대가 강계 직물공장에 도착되였다。「생산 생산」하고 부르 짖던 전 지배인 한공진동무는 누구보다 기뻤다。

로동자들은 빨리 포장을 뜯어서 기계 구조를 연구하자고 제의 하였다。

『미리 뜯어 헤치어 괘히 알지도 못하고 연구니 뭐니 하다가 기계를 마사맥겠소… 이제 바늘을 신청하여 온후 완전히 조립한 다음에 곧 생산에 돌입하면 더 좋지 않소?』

이렇게 말한 한공진 동무는 편직기를 창고에 쌓아두게 했다。

그리고는 시급히 똑같은 규격으로 6만본의 바늘을 주문했다。 그후에 도착한 바늘을 만져보며 한공진동무는 『이제부터는 생산숫자가 껑충 껑충 올라가게 됐군!』라고 하면서 싱글 벙글 하였다。

록음실

그제야 포장을 뜯게 되였다。

기계는 모다 규격이 같지 않았다。 역시 바늘도 열대모다 다른것을 연구했다。

『아이쿠 야단 났구만!』

『그렇게 뜯어보자구 하니까!』로동자들의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이렇게 모다 제각끔일 줄이야 누가 알았든가?』하면서 한공진동무는 바늘을 맞추라고 호령하였으나 귀한 시간만을 허비 하였을 따름이 였다。

공명심에 들떠어 「생산 생산」하고 입버릇 처럼 웨쳤으나 그의 주먹치기 사업 작풍의 결과는 이렇듯 도착한 편직기를 제때에 돌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1.4분기 생산 계획을 18%의 락후한 숫자를 비쳐냈다

상 엽

주정뱅이를 태우는 뻐스 아니다

본평양 뻐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질서있게 렬을지여 기다린다。 뻐스가 도착하자 얼굴이 홍당무 같이 취한 두 청년이 수수 기름떡 같은 얼굴로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들은 순번으로 오르는 사람들을 막 헤치고 앞장서서 뻐스의 문을 발길로 차며 올랐다。

차에 오른 그들은 비활개를 펴고 의자에 털석 들어 앉아 제법 제세상을 펼쳐 놓는다。"류창" 한 멜로디가 흐른다! 그남아 퇴폐적인 류행가다。

『차안에서 노래를 부르지 마세요, 정신없이 술 취한 사람은 차를 탈 수 없어요』

단발한 차장동무가 두 청년에게 말했다

『뭐요? 재청이요? 그럼 더 합시다 』

두 청년은 이렇게 차장의 말을 딴청으로 들으며 자기들의 목청만 더욱 자랑 했다。

얼마후 담배를 꺼내 연거퍼 빽빽 들어 빤다。 차내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낯을 찡그렸다。 차내가 매캐한 담배 연기로 자욱 하다。

어린이들이 연상 기침을 한다。 할머니들도 코를 막는다。

한 손님이 보다 못하여 점잖게 물었다。

『동무는 어데 계시요?』

『나요? 나는 제1트레스트 경리원 김농운 이 동무는 내 친구요』

그들은 이렇게 술 취한 것을 자랑하며「좋은」 목청을 자랑하며 어데있는가고 물었을 때는 직위까지 밝혀 말한다。

이따위 승검둥이들이 제발 다시는 보이지 않기를

(장 대 선)

원 광 수 삽 화

미제는 조선에서 물러가라!

"좋은" 부인

유명하게된 사람에게 대해서 흔히 이렇게 말 한다。즉 그는 제 이름을 떨쳤다고。

미국 덴붜루 시에서 살고있는 엘씨 케이 오르헤드부인에 대하여 비유적인 의미에서나 솔직한 의미에서나 바로 그런것을 대담하게 말 할수있다。

얼마전까지 오르헤드부인은 전혀 무명한 사람으로써 살고 있었다。다음의 두가지 요소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대로 망속으로 트러가 버렸을것이다。즉 그요소는 미국에 있어서의 반공산주의적 히스테리와 존경할만한 귀부인의 이름에 영어로 "빨갱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단어 "레드"가 있는것이다。그 녀자는 이일때문에 아주 고도의 격분에 가득찼다。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점점 싫어졌다"는 것을 보도기자들에게 선포하고 자기의 이름에 있는 단어 "레드"를 좋다는 뜻인"고—드"로 바꿀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단숨에 재판관에게 달려갔다。

—좋소—재판관 떼·보로프맨은 말했다。그리하여 "뉴욕 월드 텔레그람 엔드 쎈"신문이 증명하고있는 바와 같이 엘씨 케이 오르레드 부인은 법적으로 엘씨 케이 오르 고—드로 개명하게 되였다。

그러나 이제는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그녀자는 공연한 생각을 하고 있지않는가! 바로 지금에와서 "공산주의 선동"으로 그녀자를 책임 추궁할 우려성은 없어지지 않았다。 기소문이 이렇게 될수도 있다。즉 "자기 이름에 있는 단어 "빨갱이"를 "좋다"라는 단어로 바꾸고 괴고는 그렇게 함으로써 "빨갱이"와 "좋은"이라는 이 두 개념을 동등한것으로 인정하고있다"

하여튼간에 "빨갱이"였던 부인의 출세(개명함으로서 이름을 떨친것) 가 우리에게는 행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유리예브

한 동신 역

「혐의자」들

붉은 비단 이불을 덮었기 때문에

붉은 빛 스카트를 입었기 때문에

붉은 포도주를 마셨기때문에

밝안 칠한 작란감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반미행동』의 혐의를 받았다。

박 승 히 그 림

가막나라 에서

깜짜기 열시가되자 전기불이 갔다。 검은 장막 속에서 미군과 경찰들이 내모는 자동차 불만이 오고 가고 등골이 으슬 거리게 짖어대는 경찰의 쎄빠드만이 요란하다。

『또 까막 세상이군… 에이』

김길주의 아버지는 중얼 거렸다。

깜깜한 방안을 혼자 멀뚱 멀뚱 지키고 있던 그는 하도 답답하여 이웃집 문을 두두렸다。

전공노릇을 하는 이웃집 박상갑이 한테 전기에 대해 물어 보기도 할겸 마실을 나온것이다。

『상갑이? 열시만 되면 왜 전기를 꺼버리나?』

『글세요…』

『잘 됐네… 장안복판에 앉아서 모다 눈뜬 소경이 돼야겠군, 이젠 밤 오는게 끔직하네 그래… 쎄빠드는 왜 그렇게 짖어대는가? 그래 어찌된 셈인가? 평생에 오래 산 죄를 입는가 보네』

『낸들 알겠어요? 전력이 약하다는 구실 밑에 소위 돌번제라 하여 하루 불과 3—4시간 바께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다고들 하는데…』

박상갑이는 대답하였다。

『흥… 그럼… 자넨 알겠구만 전력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모자라기야 하죠, 그래도 미군이 막 쓰는 전력만 좀 절약 해도 이렇게야 되겠어요』

『전력은 모자란다고 하면서 전등불 못 보는건 우리 백성들뿐이니…』

『할아버지도 난 전기란게 아주 없어졌으면 속 시원하겠소』

박상갑의 맞 누이가 톡 말끝을 채였다。

『아니 그건 무슨 심술궂은 말이야?』

『우리 성희 아버지가 그 전기 고문에 병신된걸 생각하면…』

『음… 그건 그래…』

김길주의 아버지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그도「호소문」을 보고 남들과 이야기를 하다가「헌병」에게 잡혀가 술한 전기 고문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윽고 다시 전기불 이야기가 시작됐다。 김길주 아버지에겐 아무리해도 전기불을 열시가 되면 꺼버리는 것이 안타까웠다。

『아 그래… 미국한테서 전기 료금은 받는가? 우리에겐 전기 불빛만 보이고 료금은 꼭꼭 받아가는데… 그것도 몇배나 높여서…』

『웬걸요。 31억환인가 되는걸 아직 한푼도 안 받았답니다。그걸 달라고 했다간 큰일난다고 합디다。주인 모르는 사환군놈이라고 욕사발이 터지군 한다는걸요』

『저런 개놈들… 애꾸진것 우리 인민들 뿐이야…』

『그런데 할아버지? 개새끼들이 열시만 되면 전기를 꺼버리는 것이 전력도 모자라겠지만 그 보다도 평양방송을 들을까봐 그런대요』

뭐? 평양방송!』

『물에 빠진놈이 짚오래기라도 붓잡는다고 무슨 짓이면 못 하겠어요, 지금 국군 장병들 사이에는 반전 반미 사상이 점차 높아간다고『국방장관』손원일이 까지도 거품을 물고 눈이 뒤에 붙어 말하는 판인데? 인민들 속에 진정한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무섭고 목숨을 올가매는것 같을거예요 그리고 국군 장병들이 자꾸 이거 입북하니…』

『허허… 그 개놈들이 아무리 눈이 시뻘개 날쳐도 『호소문』이 괴뢰정부 중앙청사에까지 보란듯이 붙었었는데! 전기를 끈다고 평양 방송을 못 들을까?』

『허허허』

『빨리 이북 같이 전기도 마음껏 켜고 밝은 세상을 봐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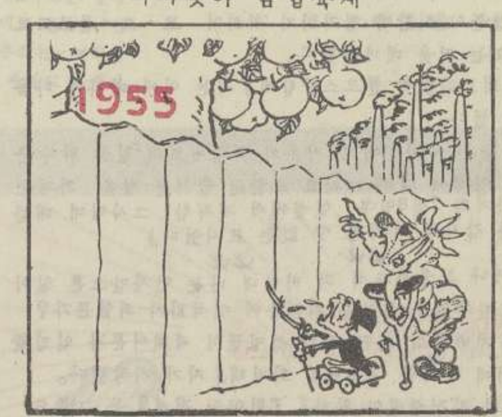
—류 달—

리 영 춘 삽 화

사과 밭은 더욱 장성 했다

먹으려고 덤볏다가

벼락맞아 삼십륙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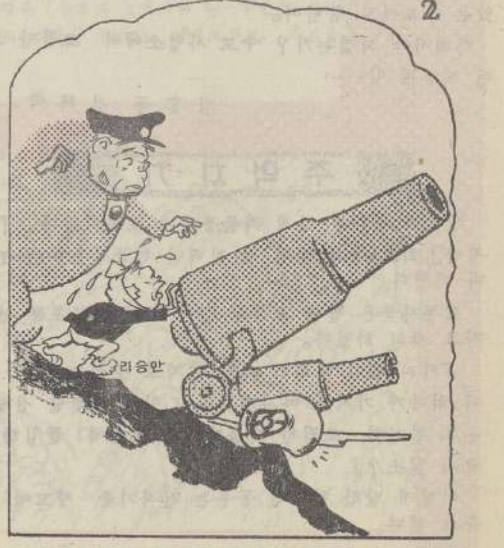
구미도라 또 발악

백인균 그 림

리승만 괴뢰정부의 1955년도 군사비 예산과 경찰비 예산은 작년보다 훨씬 증가되였다。이것은「북진전쟁」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에 대하여 더욱 야수적인 테로 학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그러나 그들이 전쟁 준비 증강에 발악하면 할수록 그들의 자체 멸망의 구멍이를 팔 따름이다。

1

2



3

4

5

리 영 춘 그 림

미제는 조선에서 물러가라!

평화는 전쟁을 타승한다!

국제소식에서

서부 독일의 히틀러 장군들이 마음 놓고 『마인 캄푸』를 다시 펼쳐 들고있다。

멧샤슈미트가 또다시 잔인한 비행기 설계실에서 자유 불망한 구상이다。

1930년대에는 쳄버렌의 빨쥐 양산이 뮨헨의 가면극으로 하여금 한결더 우스꽝스럽게 만들더니 1950년대에 와서는 『힘의 립장과 협의방법 통일』의 새 『론리』가 류행이다

파리협정! 서부 독일에 완전한 히틀러식 잔악한 복쑤주의 군대가 재무장되는데 『평화를 위해서』 란다。

파리 카페에서 아부산으로 진흙탕된 술 주정뱅이도 믿지 않을 말을…

『파리협정 비준으로 조성되는 불의의 사변에 직면할수 없다!』 이는 리성 가진 모든 사람의 일치한 웨침이다。

이같은 정세하에서의 와르샤와회의 결정들!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믿음직한 담보 이다。

윈나에서의 대오국가조약 조인!

덜레스를 괴두로한 그들ㅡ

이핑게 저핑게로 10년이나 끌어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5월 15일 윈나에 종소리높이 울며 모든 오지리 사람들이 용솟음치는 환희로 자기들의 명절을즐겼다。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전 세계의 모든 량심가진 사람들이 윈나를 향해 축하의 뜨거운 목소리를 합칠때 벨베데르궁전 앞 광장에서는 『쏘련 만세!』소리가 폭풍을 이르켰다。

쏘련 외무상의 숙소 주위에는 많은 군중들이 뫼여 4렬강 외상들의 회합에 참가하기 위하여 브·므·몰로또브가 나오는 것을 대기하였다。

『외스쩨르리힛쉐 폴크스슈팀메』 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썼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자유와 독립에로의 길을 닦아준 위대한 강국에 대한 그리고 오늘의 즐거운 날을 가져온 길을 자기의 2월8일부 연설에서 지적한 그사람에 대한 친선과 감사의 억제할 수 없는 표시였다』

예카더나 노울렌드식 피 비린내 나는 언사만으론 일이 잘될리 만무임을 서방측 지배층이 인식하게 되였든가?

서방측 지배층의 최근 공식 성명들이 세계여론과 인민들의 압력에 부득불 『유난히 화려해』지기 시작했다。

『국제 긴장상태의 완화』『협의의 정신』등 그들도 이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미해결 국제 문제들을 회담과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쏘련의 꾸준한 노력앞에서 서방측도 자기의 태도를 할수 없이 굽히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이것이 5월 14일저녁 윈나에서의 4렬강 외상회담결과로발표된 다음과 같은 콤뮤니케에 반영되고있다。

『쏘련, 미국, 영국및 불란서 외상들의 회담에서는 쏘련, 미국, 영국, 불란서 정부 수뇌자 회담의 목적과 방법들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일반적 합의가 도달되였다。이 문제의 세목들은 아직 심의중에 있다』

따뜻한 평화의 노래를 폭탄으로 막아보려는 미국지배층의 온갖 비렬한 파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아 및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참가한 반둥 회의는 거대한 승리적 성과를 거두었다。

아름다운 노래가 반둥으로부터 울려 퍼지고 있을때 모뮤카해와 쟈바해를 미국과 화란의 잠수함, 기선들이 넘나들며 무기를 실어들이고 장개석의 심복은 아들의 결혼잔치를 핑계로 인도네시아와 말라이 일대의 앞잡이들을 한자리에 모아왔던 사실이 아직도 세인의 기억에 새롭다。

그러나 몇 천명의 테로단으로 수억만의 단결을 깨트릴수는 결단코 없는 노릇이다

반둥 회의를 통하여서도 평화와 전쟁의 력량 대비에 있어 평화력량이 우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뵈여주 었다。

6월 22일 부터 분란 수도 헬싱키에서 평화 애호 력량대표자 대세계 회의가 열린다。

오늘 세계는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인민의 것이다。

현 석

—비켜라! 먼지를 털겠다

화약을 지고 불속에로 뛰여드는 침략자 미제는 본토에서 수천마일 떠러진 중국의 령토인 대만에다 궁지를 틀고 방위를 떠벌이면서 아세아 대륙 침공을 꿈꾸니 누가 그들을 않 미쳤다고 말할 것인가?

박승히 그림

긴장된 정세는 의연 지속

미제는 남부 월남에서 불란서를 구축하고 자기들의 군사 기지를 만들기 위하여 느고 딘 디엠 정부를 지지하며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어 반 정부 종파군들을 없애 버리려고 함으로써 치열한 충돌을 격화시키고 있다。

최영근 그림

평화는 전쟁을 타승한다!

합리적인 제의

그·유리에브

"월쎄쓰쩨르 쩰레그람"지 (마싸츄제쯔에서 발간된다)의 주필실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

—틀릴런지 모르겠지만 각하—그는 담배를 물고 있는 신사에게 향하였다—당신이 이 신문의 주필이신가요?

—마즌것 같소—무뚝뚝하게 주필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두 서너 마디 문의 하고 싶은 데요……

—만일 당신이 두 서너 딸라 신세 질려왔다면 친구 공연히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것이 좋소

—전혀 반대 입니다。나는 도리여 당신에게 신세를 지울려고 왔습니다。당신께서는 합중국의 애국자 가 되시는지요?

—그점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일이 없으나 아마 그럴거요 주필은 어깨를 옷쑥해 보이면서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각하! 당신은 우리 조국의 륭성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지요!

—빨리 용건이나 이야기 하오

—좋습니다— 방문객은 미소를 띄였다 —나는 당신에게 미국에 복무할 특출한 방법을 제공할려고 합니다。이것을 위해서는 다만 당신은 나의 직업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주필은 호기심이 일어 났다。

—사업 경험에 의하면 최근 삼년간 나는 실업자입니다。그런데 각하 나는요 일전에 어떤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것을 읽었습니다。즉 "실업자들은 우리의 생활 수준을 향상 시킨다。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큰 번영과 보다 높은 생활 수준의 첫째 조건으로써는 현저한 실업자 계층들의 존재인 것이다。자 그렇다치면 오백만 실업자들중의 한사람으로 되고있는 나는 벌써 번영 사업에 복무하고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영광을 당신에게 양보할수있습니다。

—어데서 당신은 그것을 읽었소 친구?

—각하 당신의 신문에서이지요

× × ×

—부언해야 할것은 우리들은 위의 담화 전달의 정확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못할지언정 미국 실업자대중에 대한 냉소적인 조롱을 기록하고 있는 "월쎄쓰쩨르 쩰레그람"지의 인용 문구를 문자 그대로 전재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미국 불쵸아 잡지계에서 이러한 기사를실고 있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한룡실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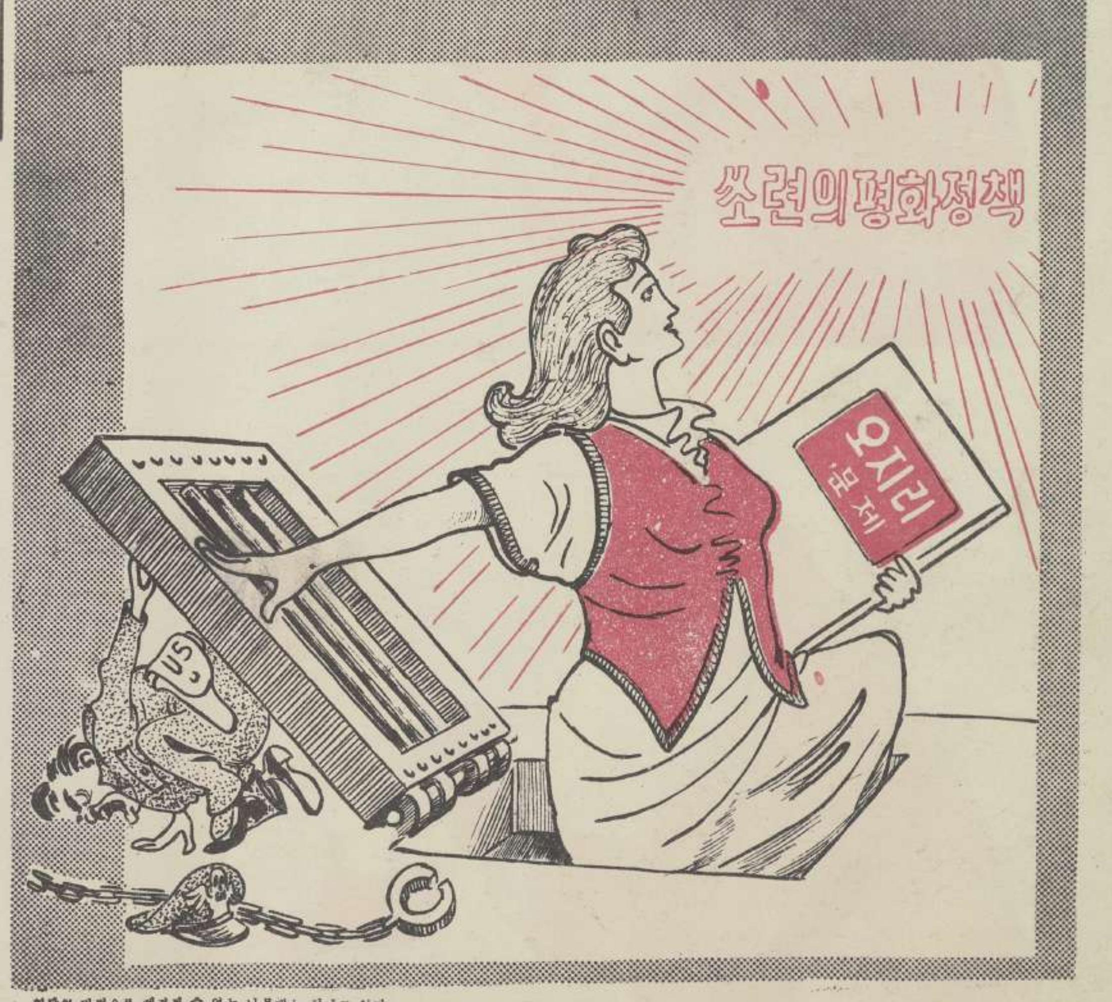
믿음직한 조치

과리협정은 어젯날의 침략자들과 강점자들의 손에 새로운 침략과 새로운 억압의 수단을 넘겨 주고 있다。한 세대의 존명 기간에 두차례나 세계 전쟁을 도발 하였던 독일 군국주의는 평화와 제 인민들의 안전을 위협 하면서 다시금 구라파와 세계의 무대에 나타나고 있다。

백인균 그림

원자광 미제 소동작전

6월15일부터 미국 대통령 내각 정부기관 지도자들 및 약 1만5천명의 국가 관리들이 워싱톤 시로부터 50내지 300마일 떠러진 곳에 여러 지점으로 철수하게 될것이라고 전하고 있다。이 조치는 원자력 평화리용에 거부하고 있는 미제가 방대한 군 비 지출과 "힘의 립장에선" 원자전쟁 선전 정책을 확대시키며 국내 민주력량을 일살해 보려는데 그의 목적이 있다。



회담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난문제는 하나도 없다。

오지리 문제를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를 방해 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여 오던 미국을 선두로 하는 국제 침략 계층은 쏘련의 노력에 의한 대오국가 조약 체결로서 또 하나의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장진광 그림

편집 위원 장진광 (책임주필) 박 무 백광호 서만일 신불출 리갑기 정현웅
발행소 활살 (시사 만화 잡지)사
인쇄소 국립종합인쇄소
인쇄 1955. 6. 1
발행 1955. 6.15
ㄱ…30103
값 (90 원)

자미나는 곳에 범난다

장진광 그림